

회 의 록

| | | | |
|-------------------|---|-----|-------------|
| 회의명 | 2018학년도 군산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 | |
| 회의개최일시 | 2018. 1. 11(목) 11:00 | 장 소 | 대학본부 제1소회의실 |
| 참석현황 | <p>○ 참석자 : 9명(전원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대표 : 최상훈, 이성룡, 박인수, 천미경 - 학 생 대 표 : 장재양, 김한별, 서민호 - 학부모 대표 : 이연식 - 관련 전문가 : 김영현 | | |
| 안 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2.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 | |
|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처장 이성룡교수 위원장 선출 <p>교직원위원(최상훈, 이성룡, 박인수, 천미경)중 호선하여 만장일치로 기획처장 이성룡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함.</p> 2.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금 : 학부폐지, 대학원 유지 - 수업료 : 학부 및 대학원 동결(전년과 동일 금액으로 결정) | | |

<등록금심의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요약>

- 간 사 :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군산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시작 일림,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씀
군산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교직원 위원중에서 위원장 추천 의견 물음
- 최상훈 위원 :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기획을 담당하시는 기획처장 이성룡 위원을 추천 함
- 전 체 위 원 : 기획처장 이성룡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찬성함
- 간 사 : 만장일치로 기획처장 이성룡위원이 군산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성원보고) 군산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총 인원 9명중 9명 참석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 4조 제2항에 의거 성원됨을 보고함.
- 위 원 장 : 인사말씀 및 개회 선언
- 위 원 장 : 재무과장에게 회의자료 설명을 요청함.
- 천미경위원 : 1월1일자 발령받은 천미경 재무과장임.
18년도 등록금 책정기본방향 교육부 지침 내려오는데 국가정책상 학생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책정되서 공시가 됨 올해는 1.8프로가 상한선임. 17년도 국립대학교 등록금 평균은 4,022,600원 이었고, 군산대학교는 그보다 낮은 3,913,600원 이었음. 군산대학교는 과거 9년동안 동결 또는 인하되었음. 더해서 신입생 입학정원이 감소추세여서 17년 대비 18년도 193명이 감소하여 학교 재정이 어려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재무과에서 등록금 책정에 대해 2가지 (안)을 준비함 1(안)은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정부정책을 고려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동결하는 (안)임. 2(안)은 정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인 1.8% 인상하는 (안)임.

- 간 사 : 회의자료 관련 질문이나 등록금 관련 의견 요청함

- 위원장 : 입학정원도 줄고 우리 대학재정 상태가 나쁜 건 사실이고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필요성 느낌. 허나 총장님 의지는 절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줄이자는 의지임

- 최상훈위원 : 입학금폐지로 등록금 수입이 얼마나 감소 되나?

- 천미경위원 : 학부만 폐지 기준 2억 8천 정도 줄어듬

- 위원장 : 입학금 폐지는 군산대학교가 전국 최초임. 학생 한명당 16만8천원이 줄어들었지만 대학 전체 입장에서는 큰 금액임. 하지만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결정되었음. 예산운영을 잘 하면 극복할수 있을 것임.

- 장재양위원 : 혁신지원사업비 관련 정부에서 800억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음
군산대는 지원을 받는지 물음

- 위원장 : 정식 명칭은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임. 새 정부 공약사항이었음.
여기서 국립대학은 9개 지역거점대학을 말한 것이었음. 공약대로라면 1조원의 예산이 필요했지만 천억만 정부에서 예산 책정을 했고 국회에서 삭감 되면서 최종 800억이 되었음. 처음에는 지역거점대학만 지원하는 계획이었으나 군산대와 같은 지역중심대학도 포함해서 모든 국립대에 대해 규모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음

- 위원장 : 학생들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요청 함

- 장재양위원 : 계열별 등록금 책정기준이 알고 싶음

- 천미경위원 : 과거에 계열별로 등록금이 처음 산정 되었던 당시 원가계산 등을 하여 정해진 걸로 알고 있음.

- 장재양위원 : 작년에 신설된 과이고 공대계열로 되어 있어는 특정과는 실험실도 없는 상황인데 공대계열로 되어 있어 공대계열 등록금을 내고 있어 해당과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해 불만이 많아 계열별 측정기준이 궁금한 것임

- 위원장 :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 일단 해당과 소속은 공대이고 작년에 신설되어 실험/실습실 배정이 안 된 것임. 올해부터 실험/실습실 배정예정임
- 김한별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원생은 왜 없나
- 위원장 : 학생 분포상 대학생/대학원생 비율차이에 따라 관례상 구성하였음. 의견 반영하여 다음 회의시 고려하겠음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로 함.
- 최상훈위원 :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 학교 재정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은 반대다. 인하하는 경우도 재정압박 더 심해지므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임
- 장재양위원 : (안)은 학교에서만 제시한건지, 교육부는 제시하지 않는지?
- 천미경위원 : (안)은 학교에서 제시한 것이고 교육부는 최대 1.8%인상가능하다는 입장임
- 장재양위원 : (안)중에 왜 인하(안)은 없는지?
- 천미경위원 : 동결(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와 마찬가지로임
- 김영현위원 : 제가 아마 등록금심의위원회 가장 오래 참석을 했을 것.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을 해야 재정상황이 유지가 됨. 인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동결하는것에 동의함.
- 위원장 : 동결로 의견이 모아진거 같음.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함
- 위원들 : 모두 동의함
- 위원장 : 대학원 입학금 관련 유지할지 폐지할지 의견 필요함

- 천미경위원 :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중임.
- 위원장 :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함
- 위원들 : 모두 동의함.
- 위원장 :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동결과 대학원 입학금 유지 결정(폐회선언)

2018. 1. 11.

· 위 원 장 : 이 성 룡

· 확 인 자 : 천 미 경

· 간 사 : 이 승 민

· 서 기 : 김 현 정